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한국십진분류법 적용 현황 및 이용자 요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KDC) and Users' Needs in Libraries for Children in Korea

정연경(Yeon-Kyoung Chung)**

최윤경(Yoon-Kyung Choi)***

목 차

- | | |
|---------------------|----------------------|
| 1. 서론 | 4.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이용자 요구 |
| 2. 어린이 자료와 한국십진분류법 | 5. 어린이 자료 분류의 개선 방안 |
| 3.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분류 현황 | 6. 결론 |

초 록

본 연구는 KDC 4판을 중심으로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어린이 자료 분류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 연구, 국내 51개 어린이도서관의 KDC 적용 현황 조사와 부모 및 어린이 이용자의 요구 분석을 실시하였다. 국내 현황과 이용자 요구 분석 결과를 토대로 KDC 개선 방안을 분류체계 부문과 배가 부문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우선, 분류체계 부문에서는 특정 기호에 집중되는 주제를 분산시키고, 어린이 자료의 다양한 유형과 특성, 다양한 어린이 문학 장르를 KDC 상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학제적 주제에 대하여 상세한 주기 및 분류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배가 부문에서는 첫째, 이용자 친화적인 청구기호 구성과 배열 방법을 도입하고, 둘째, 이용자의 다양한 관심 분야를 반영한 컬렉션 구성과 어린이와 부모를 대상으로 이용교육을 실시하도록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classification focused on KDC 4th edition for children's materials. For the study, literature study, KDC application and user survey in 51 libraries for children were performed. Based on the results, classification for children's materials is proposed to improve in two ways: classification system itself and arrangement in the shelf. First of all, it is required to scatter the subjects that are centered on specific numbers and to allow various types, characteristics and literature genre of children's materials to be classified in KDC. KDC also should provide specific notes and classification guidelines for interdisciplinary subjects. In the shelf arrangement, it is proposed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user-friendly call number and arrangement principles by ages or titles. In the end, it is necessary to compose various collections that represent users' needs, and the user education program is needed.

키워드: 어린이도서관, 분류, 한국십진분류법, 어린이 자료, 이용자 연구, 배가

Children's Library, Classification,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Children's Materials,
User Study

* 이 논문은 2008년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지원한 연구과제 "어린이도서관 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ykchung@ewha.ac.kr)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yunee20@gmail.com)

논문접수일자: 2009년 2월 11일 최초심사일자: 2009년 2월 23일 게재확정일자: 2009년 3월 6일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우리는 평생 교육과 학습 능력의 개발, 다문화적 풍요와 지식에 대한 접근이 중요한 사회에 살고 있다. 좋은 어린이도서관은 평생교육과 학습능력 개발을 키워주고 그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게 해주는 바탕이다. 그러므로 모든 어린이가 도서관에서 즐겁게 경험하게 하고 일찍부터 형성된 독서 습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삶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소양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 어린이 자료의 출판량이 증가하고 독서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어린이들의 풍부한 독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어린이도서관이 매년 건립되고 있고, 공공도서관에서도 어린이를 위한 장서와 시설, 서비스 등을 확충시키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의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는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때 분류체계는 이용자의 자료 이용에 가장 중요한 접근점을 제공하게 된다. 왜냐하면 분류체계가 자료를 모아주고 구분하는 논리적인 기준인 동시에, 서가의 위치와 배열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리적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린이도서관에서 사용하는 분류체계는 개별 자료의 특성, 어린이 자료의 특성, 어린이도서관의 주된 이용자인 어린이나 부모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표준 분류법으로는 KDC(한국십진분류법), DDC(듀이십진분류법), LCC(미의회도서관분류법), NDC(일본십진분류법)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학

문과 주제 기반의 분류체계로서 기본적으로 국가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의 성인 장서에 맞게 개발되어, 어린이 자료의 다양한 유형과 특성, 어린이의 이용 행태에 대한 반영이 미흡하다. 그러므로 어린이도서관의 장서를 일반적인 성인 장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분류하거나 배가한다면, 도서관의 주이용 대상인 어린이의 정보 요구를 충족시키기란 쉽지 않다.

외국의 어린이도서관은 표준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어린이의 이용 행태 및 정보 요구를 반영하여 분류기호를 수정·적용하거나 배가 방법을 고안하고 있다. 국내의 KDC는 주로 성인 자료 분류에만 초점을 맞춰 왔고, 상대적으로 어린이 자료의 유형과 특성은 반영하지 못하였다. KDC를 간략 적용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하는 어린이도서관도 있으나, 이에 대한 통일된 지침이 제공되지 않아 도서관마다 분류 적용 방식이 다 다르다. 또한 도서관에 따라 자관개발분류법인 느티나무분류법, 파랑새분류법 등을 적용하고 있지만, 자관개발분류법은 KDC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류항목이 적고, 비체계적이어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어린이 장서를 수용하기 어렵다.

아직까지 국내에 어린이도서관의 이용자인 부모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분류체계에 대한 요구 분석을 다룬 연구는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는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KDC 4판의 적용 현황과 함께 이용자 요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어린이 자료 분류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KDC가 어린이와 부모 이용자의 자료 접근 및 이용 편의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분류체계방안의 기초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분류체계 적용 현황과 이용자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어린이 자료 분류담당사서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 및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앞서 문헌 연구를 통해 어린이 자료의 유형과 특성을 고찰하고, 이와 관련하여 KDC 4판을 중심으로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국내 현황 및 요구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대상은 본 연구의 목적과 (사)어린이도서관연구회의 어린이도서관 구분 유형에 기반하여, KDC를 사용하는 공공도서관 어린이실 및 어린이전문도서관, 학교도서관, 기적의 도서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고, KDC의 개선점 제안에 참고하기 위해 다른 분류체계를 사용하는 기적의 도서관 3개를 포함시켰다. 표본 구성은 한국도서관연감(2008)의 장서 통계를 기준으로 어린이 자료 2만권 이상을 보유한 총 51개 도서관의 어린이 자료 분류 담당 사서와 부모 및 어린이 이용자로 하였다. 조사 기간은 2008년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이루어졌으며, 분류담당자 및 이용자 조사 이외에도 개별 도서관의 어린이 자료 배가 방식을 조사하여, 효과적인 어린이 자료 분류를 위해 적용 가능한 사항들을 도출하였다.

분류 담당 사서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는 분류체계 적용 현황 및 문제점 파악에 주안점을 두었다. 조사 내용은 첫째, 분류 실무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이 자료를 분류하는데 있어 현용 분류체계 사용에 관해 알아보았으며, 둘째 KDC를 중심으로 어린이 자료 분류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였고, 셋째 별칭, 띠라벨

등을 이용해 자관에서 분류기호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을 조사하여 KDC에 추가되거나 수정되어야 할 사항을 파악하였다.

이용자 요구 조사는 첫째, 어린이와 부모의 분류기호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둘째 자료 검색 및 이용행태를 조사하여 자료검색 방법, 자료 찾기의 용이성, 자료 찾기의 어려운 이유를 알아보고, 셋째, 분류와 배가에 대한 요구 사항도 조사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이용자 관찰 및 면담, 분류담당사서와의 분류체계 적용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어린이 자료 분류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1.3 선행연구

어린이도서관의 분류체계 적용 현황에 관한 연구는 주로 어린이도서관의 분류체계 개발을 위한 과정의 하나로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본 연구는 어린이도서관이나 어린이 자료를 위한 분류체계 개발과 각 주제 분야별로 KDC의 개선방안을 다룬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내에는 이윤선(2001), 김천숙(2005), 민경록과 성승경(2005), 박경숙(2005), 김정현과 문지현(2007), 문지현(2008) 등 어린이도서관 분류체계에 KDC를 활용하여 수정·보완하거나 독자적인 분류체계를 개발하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이윤선(2001)은 학교도서관을 위한 KDC 간략판을 개발하기 위해 학교도서관 사서 교사를 대상으로 분류표 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김천숙(2005)은 공공도서관의 그림책 관리 및 이용에 적합하도록 그림책을 효과적이고 체계

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KDC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민경록과 성승경(2005)은 어린이 자료 분류에 적합하도록 KDC 4판 문학류(800)의 수정 및 보완 방안을 제안하였다. 박경숙(2005)은 소장 자료 검색을 통하여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작은어린이도서관의 분류표 사용 현황을 조사하고, KDC와 외국 분류표인 NDC, DDC 간략판의 특징을 분석하여 어린이 도서관을 위한 분류체계의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김정현과 문지현(2007)은 인터넷을 통해 국내 어린이도서관에서 현용하고 있는 분류표를 조사한 뒤, KDC를 제외한 느티나무도서관 분류표, 파랑새도서관 분류표 분석 결과를 토대로 KDC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린이도서관의 전용 분류표 개발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도출하였다. 문지현(2008)은 어린이 도서관에 적합한 분류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공립 및 사립 어린이도서관의 분류 담당 사서를 대상으로 분류표 사용 현황과 분류내용을 조사하였다.

외국에서는 주로 DDC나 NDC 등의 표준분류체계를 사용하여 어린이 자료를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분류체계 개발 보다는 사례를 중심으로 어린이 자료의 배가 방식이나 표준분류법의 적용 방안 등을 다룬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Boyce와 Boyce(2002)는 어린이 장서를 위한 특별한 배가 방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어린이와 부모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배열 및 배가 방식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용자의 관심이 표준분류체계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 자료 분류와 배가를 위해서는 어린이 검색 요구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Dumas(2005)는 이용자 요구 분석을 토대로 학교도서관의 소설류 배가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용자가 선호하는 소설 장르를 11개로 구분하고 이를 청구기호에 추가함으로써 소설 자료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Fountain(2006)은 어린이를 위한 목록 기술에 대해 논의하면서, 어린이 자료 분류 시 LCC, DDC 등의 표준분류체계 적용 방안에 대해 소개하였다. 특히, DDC를 적용하는 경우 소설은 E(Easy)나 Fic(Fiction)으로, 전기는 B(Biography)와 같이 문자 기호를 사용하도록 제안하고, 민속자료(folklore)의 분류지침을 제공하였다. Intner 등(2006)은 어린이의 자료 검색 성향을 분석하여 분류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의 경우, 어린이 이용자의 요구나 행태 분석을 통해 자료의 배가의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해온 반면, 국내에는 어린이 분류 담당 사서를 대상으로 분류표의 적용 실태와 문제점, 개선사항들이 중점적으로 연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실제 이용자인 부모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분류체계의 요구 사항을 조사하고, 어린이 자료 분류 시 KDC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2. 어린이 자료와 한국십진분류법

2.1 어린이 자료의 특징

2.1.1 어린이 자료의 유형

일반적으로 어린이에 해당하는 연령대는 취학 전 단계(생후~만 6세)인 영유아와 초등학교 6학년까지(만 12세 이하)를 포함한다.堀川照代(2007)는 어린이 자료를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책이나 그 밖의 자료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어린이 자료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단행본, 정기간행물, 비도서 등 모든 매체의 정보를 총칭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어린이 자료의 유형을 정기간행물, 비도서, 단행본과 같은 물리적 매체 이외에도 구성형식과 내용에 따라 그림책, 만화책, 어린이문학책, 지식정보책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의 개념과 특성, 하위 유형들을 살펴 보았다.

가. 그림책

그림책은 문학과 예술적 측면을 모두 가진 자료로서 현재 그림책의 이용 대상은 주로 어린이지만, 모든 연령층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그림책은 그림의 비중과 내용에 따라 하위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그림의 비중에 따라 그림책과 그림이야기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림책은 글 없이 그림만 있거나 그림의 이름 정도만 간단하게 쓰여 있는 책을 말한다. 그림책은 각 페이지의 글과 그림이 줄거리를 가지지 않으며, 그림만 있는 책, 글자책, 숫자책, 개념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이야기책은 글과 그림이 조합되어 그림과 함께 간단한 이야기의 구조를 가지며, 글의 비중이 그림책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크다(문지현 2008, 36-37).

다음으로 내용에 따라 이야기그림책과 정보그림책, 개념그림책으로 하위 구분할 수 있다. 이야기그림책은 허구적인 내용의 이야기를 그림을 통해 표현한 것이며, 정보그림책은 지식정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문지현 2008, 37). 이 중 정보그림책은 구성적 측면에서는 그림책이면서, 내용적 측면에서 지식정보책에 속할 수 있다.

나. 만화책

만화책은 수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미학적 반응을 일으키기 위하여, 의도된 순서로 병렬된 그림 및 기타 형상들이다(McCloud 1999, 17). 만화책은 내용적 측면과 형식에 따라 하위 유형 구분 가능하다. 먼저 내용적 측면으로 구분하면, 학습만화(정보만화)와 이야기만화로 세분이 가능하다. 학습만화는 오락적 측면 대신 특정 주제의 지식정보를 알리고 가르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이야기만화는 정보 전달보다는 허구적인 내용으로 재미와 오락적 기능에 치중한다. 형식적 측면을 기준으로 만화책 유형을 나누어보면, 캐리커처(Caricature), 카툰(Cartoon), 코믹스(Comics)가 있다. 캐리커처는 특정 인물을 비판하거나 조소하기 위해 인물의 초상을 변형, 과장, 생략 기법 등을 사용해서 그린 그림이지만, 카툰은 특정 주제나 사회 현상에 대해 풍자와 해학, 위트 등을 이용해 과장과 생략 기법으로 간략하게 그린 그림으로 보통 1컷에서 4컷 정도로 표현된다. 코믹스는 이야기 구조를 지녔으며, 일반적인 만화책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짧게는 한 페이지에서 길게는 수십 권에 이르고, 코믹스에는 성인을 위해 길고 복잡한 이야기 구조를 지닌 그래픽 소설(Graphic novel)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 어린이문학책

어린이문학을 성인문학과 같이 독립된 문학으로 볼 것인지, 성인문학의 특수 장르로 간주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문학 분야에서도 많은 담론이 존재하고 있다. 어린이문학에는 동요·동시, 어린이극, 동화 등이 있으나, 동화, 어린

이 소설, 옛이야기(전래동화)의 개념과 이들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화와 어린이 소설을 동일 개념으로 간주하고, 하위 유형을 옛이야기, 창작동화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옛이야기란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승문학의 일종으로, 민담, 우화, 전설, 설화 등의 내용을 어린이에 맞게 재화하거나 재구성한 이야기를 뜻한다. 그러나 실제로 옛이야기가 전승문학인지, 동화의 하위 갈래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한다. 둘째, 창작동화는 작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쓰인 문학으로 환상적 요소의 가미 정도에 따라 환상동화, 사실동화, 역사동화로 구분할 수 있다. 환상동화란 실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나 존재하지 않는 사람 혹은 생물에 관한 일로 꾸며진 이야기로서 공상과학, 판타지 등의 장르가 여기에 속한다. 사실동화는 현실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소재로 한 허구적 이야기이며, 역사동화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하여 허구적 상상력을 부여한 서사문학으로 정의할 수 있다(문지현 2008, 34).

라. 지식정보책

지식정보책은 문학을 제외한 주제에 대하여 어린이에게 정보와 지식을 알리고, 가르쳐주는 책이다. 지식정보책과 어린이문학책과의 차이점은 어린이문학책은 저자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작가의 의도에 따라 이야기 안에 다양한 정보, 사실, 지식이 포함될 수 있다. 반면, 지식정보책은 특정 지식, 개념, 정보를 알려주고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며, 이 때 산문 뿐 아니라 동화, 만화, 그림 등 다양한 이야기 구조 및 구성형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장지숙 2006).

마. 책 이외의 자료

어린이 자료도 책 이외에 잡지, 신문 등과 같은 정기간행물과 CD-ROM, DVD, 비디오테이프, 카세트테이프 등의 비도서 형태의 자료들이 있다. 이들도 위에서 제시한 유형과 같이 구성형식이나 내용을 기준으로 하위 구분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어린이 자료의 유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어린이 자료의 유형

구분기준		세부 유형				
매체		단행본(장난감 책 포함), 정기간행물, 비도서				
내용	구성형식	글책		그림책	만화책	캐리커처
				그림이야기책		카툰
픽션	산문	동화/소설	전래동화/소설(옛이야기, 전승문학) 창작동화/소설	이야기그림책		이야기만화
		아동극				
	운문	동요·동시				
논픽션	지식정보책			정보그림책		학습(정보)만화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과학, 예술, 역사/전기)			개념그림책		

2.1.2 어린이 자료의 특성

어린이 자료는 어린이의 독서 흥미와 관심을 끌기 위해 형태적 측면, 즉 삽화와 편집요소 등이 독특한 특성을 지닌다. 삽화란 책, 잡지, 신문 등 인쇄물에 끼워 넣는 본문과 관계된 그림, 사진, 설명도 등을 말한다. 어린이 자료에서 삽화의 기능은 사실적인 사항을 전달하는 지식정보책의 글 내용을 보조하거나 보충하는 역할을 하며, 허구적인 내용을 다룬 경우는 독자의 이해를 돕거나 호기심과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문지현 2008, 29). 삽화와 그림책의 구별에 있어, 그림책은 그림 없이는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으나, 삽화는 글의 보조 역할이므로, 삽화를 빼더라도 내용 상 차이가 없다.

어린이 자료의 편집요소적 특징은 판형과 책의 크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판형에 있어 어린이 책은 사각형 모양 뿐 아니라 동물 모양, 원형 등 다양한 판형의 책들이 출판되고 있다. 책 크기도 보드책(board book)과 같이 작은 크기의 책부터, 일반 서가에 꽂기 어려운 큰 크기의 책으로 다양한 양상을 띤다(문지현 2008, 29). 이외에도 어린이 책 중에서 어린이의 상상력과 독서 흥미 유발, 유아의 오감 발달을 위해 독특한 구성과 형식으로 출판되는 장난감책(toy book)이 있다. 장난감책의 종류는 팝업책(pop-up book), 날개책(flap book), 퍼즐책(puzzle book), 보드책, 형겅책(cloth book), 만들기책(craft book) 등으로 다양한데 이러한 형태의 책은 도서관에서 별치하는 경우가 많다.

2.2 한국십진분류법과 어린이 자료

많은 어린이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어린이실

에서 KDC를 채택하여 자료를 분류하고 있지만 실제로 KDC를 이용해 어린이 자료를 분류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다. 그동안 KDC는 어린이 자료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다양한 내용과 주제, 형태로 출판되는 어린이 자료를 분류할 수 있는 주기사항과 지침이 부족하다. 또한 어린이 자료가 가장 많이 출판되고 있는 문학 분야의 경우 어린이 관련 기호가 아동문학전집(808.9), 한국동요·동시(811.8), 한국아동극(812.8), 한국동화(813.8), 일본동요·동시(831.8), 일본동화(833.8)의 6개 항목만 있어서 전집을 제외하고 상기 기호 외에 다른 언어군에서는 어린이문학을 분류할 수 있는 기호가 없다.

이처럼 KDC가 어린이 자료를 분류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첫째, KDC의 기본체계와 원칙을 벗어나면 장서의 통합관리나 자료검색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용자들이 각 지역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이다(박경숙 2005). 둘째, 체계적으로 전개된 분류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류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학문의 체계를 습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자료 분류의 원리는 학문 분류를 토대로 하여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된 것으로, 분류기호에 대한 이해는 지식의 체계화에 대한 훌륭한 정보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분류기호를 전개할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조직화 하는 것이 어린이들의 지식 체계 습득에 도움이 된다(민경록, 성승경 2005). 그러므로 KDC의 분류체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 자료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분류기호를 신설하거나, 세

분·통합하는 등 수정하고 분류지침 및 주기사항 등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분류 현황

3.1 어린이도서관 분류체계 적용 현황 분석

3.1.1 조사 개요

조사 대상은 한국도서관연감(2008)의 장서통계를 기준으로 어린이 자료 2만권 이상을 보유한 서울·경기 지역의 공공도서관 어린이실 37개와 기적의 도서관 7개, 학교도서관 5개, 국립도서관 1개, 전문·특수도서관 1개, 총 51개 도서관 어린이 자료 분류 담당 사서이며, 이 중 응답자는 49명으로 94%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KDC 적용 현황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전체 조사 대상 중 48개 기관은 KDC를 사용하는 도서관으로 선정하였고, 개선방안에 참조하고자 KDC 이외의 분류체계를 적용하는 3개 도서관을 포함시켰다. 조사 기간은 2008년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어린이 자료 분류담당자와의 전화, 전자우편, 직접 방문을 통해 설문 및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고, 담당자 설문 조사 이외에 개별 도서관을 방문하여 어린이 자료의 배가 방식을 파악하였다. 조사 내용은 첫째, 분류 실무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이 자료를 분류하는데 있어 현용 분류체계 사용에 관해 알아보았으며, 둘째, KDC를 중심으로 어린이 자료 분류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였다. 셋째, 별치, 띠라벨 등을 이용해 자관에서 분류 기호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을 조사하여 KDC에 추가되거나 수정되어야 할 사항을 파악

하였다. 설문지는 김천숙(2005), 이윤선(2001), 문지현(2008)의 연구를 참조하여 5개 부문인 응답자의 일반 사항, 어린이실의 운영 현황, 어린이 자료의 분류체계 적용 실태, 향후 분류체계에 반영되어야 할 요소의 요구 조사, 실제 어린이 자료의 배가 방식으로 구성하였다(표 2 참조).

3.1.2 분류법 적용 및 배가 현황

가. 응답자의 일반 사항

전체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 89.8%, 남성 10.2%로 어린이 자료 분류를 담당하는 사서는 여성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았다. 연령은 30대가 21명(42.9%)으로 가장 높았고, 40대가 18명(36.7%), 20대 9명(18.4%), 무응답 1명(2.0%) 순으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경력은 평균 117.4개월(약 9년)로, 최저 2년에서 최고 25년으로 다양하게 분포하였다. 학력의 경우, '4년제 졸업'이 37명(75.5%)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원 졸업' 9명(18.4%), '전문대 졸업'이 3명(6.1%) 순으로 나타났다. 취득 자격증은 '2급 정사서'가 33명(67.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준사서' 6명(12.2%), '1급 정사서' 4명(8.2%), '사서교사' 4명(8.2%), 무응답 2명(4.1%) 순으로 조사되었다.

나. 응답기관의 운영 현황

① 1일 평균 이용자수와 주 이용 연령대

응답 기관 중 무응답을 제외한 36개 기관의 1일 평균 어린이실 이용자는 487.95명으로 가장 적은 기관은 40명, 가장 많은 기관은 1,639명에 달하였다. 어린이 서비스 담당자에 따르면, 어린이 자료 이용률은 평일보다는 주말에 현저히 많고, 어린이와 부모가 동반하여 방문

〈표 2〉 설문 문항 구성

문항 범주	세부 분석 항목
응답자의 일반 사항	성별, 연령, 학력, 사서경력, 취득자격증
어린이실(어린이도서관)의 운영 현황	1일 평균 이용자수
	이용자 연령대
	주제별 장서수
	신규 구입 분야
	이용교육 실시 및 계획 여부
어린이 자료의 분류체계 적용 실태	사용 분류체계와 적용의 이유
	현 분류체계의 만족여부와 문제점
	분류체계 변경 계획 여부
	어린이도서관 표준분류체계의 적용 의사
	KDC의 현 수정전개 부문
	분류체계의 적용 수준
	분류기호 부여 시 참조 자료
	적용 도서기호의 종류 및 필요성
어린이 자료 분류에 관한 요구 사항	KDC의 추가 개선이 필요한 부문
	분류에 고려해야 할 자료의 특성
	변경이 필요한 조기표
	추가적으로 도입할 조기표
배가 관련 사항	현용 별치기호의 종류
	어린이 자료의 배가 방법(별도 배가, 띠라벨 등 포함)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어린이 자료의 주 이용 연령대는 ‘초등학교 1~3학년’이 가장 많았고, ‘만 5~6세’, ‘초등학교 4~6학년’, ‘만1~4세’ 순으로 조사되었다.

② 주제별 장서수

응답 기관 중 36개 기관의 KDC 주류별 평균 장서수는 전체 40,788권 중 문학이 18,753권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연과학류 5,058권, 사회과학류 4,542권, 역사 4,112권으로 나타났다. 반면, 총류, 언어, 철학, 예술, 기술과학, 종교는 상대적으로 차지하는 장서 비율이 현저히 낮아 어린이 장서의 문학 편중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③ 신규 구입 분야

주제별 어린이 자료의 구입 5순위를 조사한 결과, 문학이 가장 높았고, 자연과학, 역사, 사회과학, 언어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어린이 자료의 출판동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특히 외국어 교육을 강조하는 국가 정책에 따라 향후 언어 분야와 외국어 자료 구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④ 이용교육의 실시

이용교육에는 도서관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정기·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료 검색 및 자료 이용교육이 포함되었다. 전체 49개 기관 중 35개 기관(71.4%)이 이용교육을 실시하였

고, 7개 기관은 실시하지 않았으며, 실시하지 않는 7개 기관 중 5개 기관에서 향후 어린이를 위한 이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 분류법 적용 실태

① 사용 분류법 및 적용 이유

전체 49개 응답 기관 중 93.9%(46개)가 어린이 자료 분류법으로 KDC를 적용하고 있으며, 3개 기관은 KDC 이외의 분류법을 적용하고 있었다. KDC를 사용하는 46개 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적용 이유를 조사한 결과, '공동목록 이용을 통한 업무 효율화'가 34명(73.9%)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타 도서관과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가 27명(58.7%), '성인 자료와의 분류 일관성 및 통일성 유지'가 25명(54.3%), '분류기호 및 자료 이용에 대한 재교육 불필요'가 10명(21.7%), '책 찾기가 쉬움' 8명(17.4%), '새로운 분류법 개발의 어려움'이 6명(13.0%), 기타 1명(2.2%)으로 조사되었다. KDC 이외의 분류법을 적용하는 3개 기관 응답자에게 KDC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KDC가 어린이 자료에 대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이 2명, '장서 편중 및 주제 부족 문제', '어린이가 이해하기 어려움', '배열이 복잡함'에 각각 1명씩 응답하였다.

② 현 분류법의 만족여부와 문제점

49개 응답 기관 중 55.1%(27명)는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44.9%(22명)는 불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용 분류법에 따른 만족 여부를 교차 분석한 결과, KDC 사용자는 '만족'과 '불만족'이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자관개발분류법을 사용하는 2명은 모두 만족한다

고 응답하였으며, KDC 이외의 분류법을 적용하는 도서관의 응답자(기타)는 불만족하였다. 불만족하는 22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 자료 특성의 미반영'이 68.2%(15개)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분류기호의 이용자 이해부족'이 22.7%(5개), '기타'가 9.1%(2개)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타에는 '십진분류의 특성 상 자릿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와 'KDC의 세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KDC 이외의 분류법을 사용하는 응답자는 '분류법의 주제 항목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어린이 자료 분류 시 KDC의 문제점을 분류기호별로 조사한 결과, 종교, 사회과학, 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등 대부분의 주류 항목에서 나타났다. 종교(200) 부문에서는 신화와 문학적 작품 간의 구분이 필요하고, 종교와 철학적 측면을 함께 다루는 저작 분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과학(300)에서는 유아용 개념책에 적절한 분류 기호가 없고, 옛이야기(전래동화)가 다수의 기호로 분류가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과학(400, 500) 부문에서는 공룡(457.279)과 같이 이용이 높은 주제의 분류기호가 길어져 어린이가 식별하기 어려우며, 자연과학과 기술과학을 함께 다룬 저작이 많고, 성교육 자료도 분류할 수 있는 기호가 다양하여 분류의 혼란을 주고 있었다. 예술(600)의 경우, 비도서 자료 중 영화/애니메이션 분류와 배열이 난해하며, 언어(700) 부문에서는 외국어 자료와 번역 자료 간에 식별이 필요하며, 학습용 외국어 자료의 분류기준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문학(800)에서는 한국, 일본문학 이외의 언어권 문학은 '동

화'(8) 표현을 할 수 없고, 동시와 아동극, 동화를 제외하고는 어린이문학 장르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다. 전기에서는 지역별 전기와 주제별 전기(998), 주제+조기표(전기—99) 간의 적용 기준이 없어서 도서관마다 모두 다르게 적용하고 있었으며, 인물의 전기와 예술 작품, 역사적 사건 등을 함께 다룬 저작이 많아 분류 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③ 분류표 변경 계획 여부

분류표의 변경 계획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아니오'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45개 기관, 91.8%), '예'가 2개(4.1%), 무응답 2개 기관 순으로 나타났다.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KDC 3판에서 4판으로 갱신하는 기관이 1개, KDC로 변경 적용 기관이 1개관이었다. 응답자에 따르면, 어린이 자료의 장서수가 증가하고 지역 내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이용자가 타도서관과 연계하여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KDC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④ 어린이도서관 표준분류체계의 적용 의사

향후 어린이 자료를 위한 표준적인 분류체계가 개발되면 이를 적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22개 기관(44.9%)이 '적용하겠다'고 응답하였고, '적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기관이 21개 기관(42.9%), 무응답 6개 기관(12.2%)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면담 결과,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구축된 장서의 목록 변경 및 장비 제작업으로 인한 업무 가중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⑤ KDC의 수정전개 부문

현재 수정 전개 분야에 대해 조사한 결과, 주

로 문학, 역사, 과학, 예술 등의 주제 분야에서 수정 전개되었다. 문학 부문에서는 813.8(동화)을 사용하지 않고, 성인문학과 동일하게 분류하거나 국내 동화를 창작동화와 전래동화로 구분하여 이루어졌다. 역사 부문에서는 간략한 시대구분 적용하거나 전기를 우리나라, 동양, 서양으로 3개 구분하여 기호 부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연과학 및 기술과학 부문에서는 목 및 세목 단위는 강 단위로 올려 사용하는 도서관이 있었다.

⑥ 분류표의 적용 수준

어린이 자료의 분류기호 적용 수준을 알아본 결과, '세목수준' 적용이 31개 기관(63.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목수준' 14개 기관(28.6%), '강수준' 2개 기관(4.1%), '혼용 적용'과 무응답이 각각 1개 기관(2.0%)으로 나타났다.

⑦ 분류기호 부여 시 참조 정보

분류기호 부여시 응답자가 참조하는 정보로는 'KOLIS-NET'이 34명(68.8%)으로 가장 높았고, '타도서관 분류기호' 12명(25%), '기타' 7명(14.6%), 'CIP', '참조하지 않음' 5명(10.4%)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동목록(KOLIS-NET)을 사용하는 공공도서관의 환경이 반영된 것이며, 기타 참조하는 정보로는 자관의 소장 도서 분류기호, DLS(학교도서관 공동목록), 국립중앙도서관의 분류기호 등이 있었다.

⑧ 도서기호

모든 응답 기관에서 도서기호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동서저자기호로는 '장일세도서기호법'이 25개 기관(51%)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

로는 '이재철도서기호법' 19개 기관,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기호법' 3개 기관, 기타와 무응답이 각각 1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양서는 '커터-샌본저자기호법'을 20개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었고, '입수순'이 2개 기관, 기타 1개 기관으로 조사되었다.

⑨ 현재 사용하는 도서기호법에 대한 만족 여부와 문제점

사용 중인 도서기호법에 대한 만족 여부를 조사한 결과, 35명(71.4%)이 '만족한다', 14명(28.6%)은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33명(67.3%)은 어린이 자료에 도서기호법이 '필요하다', 11명(22.4%)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도서기호법은 저자를 기준으로 저작을 모아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 필요하지 않다고 한 응답자들은 도서기호는 어린이가 이해하기에 어렵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라. 어린이 자료 분류에 관한 요구 사항

① KDC의 추가 개선이 필요한 부문

KDC에 우선적으로 수정·개선이 필요한 주제 분야를 조사한 결과, 문학이 가장 높았고,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총류, 역사, 언어, 예술, 종교, 철학 순으로 나타났다.

② 분류에 고려해야 할 자료의 특성

주제 이외의 어린이 자료 분류에 고려해야 할 특성을 조사한 결과 연령 측면이 28명(57.1%)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그림책, 팝업책과 같은 물리적·내용적 유형에 25명(51%)이 응답하였다.

③ 조기표

변경이 필요한 조기표는 문학류(800)를 세분화할 수 있는 '문학형식구분'이 19명(79.2%)으로 가장 높았다. 이와 함께 현 KDC의 문학형식구분이 어린이문학 자료의 형식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그림책이나 만화책과 같이 다양한 구성형식을 식별할 수 있는 기호가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조기표로 추가될 필요가 있는 요소를 조사한 결과, 연령과 자료 유형(만화책, 그림책), 어린이문학 형식을 위한 새로운 조기표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마. 배가 실태

① 별치기호

전체 응답 기관에서 별치기호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별치기호 사용이 높은 자료는 어린이 자료가 32개로 가장 높았고, 비도서 28개, 그 다음으로 일반도서, 그림책, 기타(유아 자료, 참고자료 등), 정기간행물과 만화, 동화책, 옛이야기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은 성인 자료와 어린이 자료의 소장처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이를 표시하기 위해 별치기호를 적용하고 있었다. 기적의 도서관은 어린이 자료 위주로 장서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성인을 위한 일반도서에 대한 별치기호를 적용하였으며, 비도서는 도서관의 관리 편의를 위해 별치하여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만화, 동화, 그림 등 자료 구성형식에 따른 별치기호 사용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② 어린이 자료의 배가 방식

조사 대상 기관 모두 유아실과 어린이실로 나누어 장서를 구분하여 배가하고 있었다. 기

본적으로 별치기호 적용 후, 청구기호 순으로 배열하고 있었으며, 도서관에 따라 어린이의 자료에 대한 주요 접근점을 서명과 출판사로 간주하여, 저자기호를 무시하고 출판사와 시리즈별로 배가하는 사례도 조사되었다. 기적의 도서관은 주제를 먼저 적용하고, 유아와 초등학교로 연령 및 수준 구분하여 배가하였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외국어 자료를 주제 적용 후 학습 단계로 구분하여 배가한 경우가 있었고, 신착자료, 외국어 자료, 만화책, 그림책, 정기간행물, 아주 큰 책과 작은 책, 전집, 이용도가 높은 자료 분야(곤충, 권장도서, 테마별 교과관련 도서) 등 자료의 형태나 유형에 따라 별치기호 없이 별도 배가하였으며, 특히 외국어 자료는 피라벨을 사용하여 자료의 연령별·단계별 수준을 반영하고 있었다.

4.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이용자 요구

4.1 어린이 및 부모 이용자 요구

4.1.1 조사 개요

이용자인 어린이 및 부모의 요구 조사를 통해 이들의 분류체계에 대한 인식 및 이용의 용이성을 파악하였고, 특히 이용자가 원하는 분류체계, 배가방식 등에 대한 선호 형태를 조사하여 이용자를 위한 분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사서 설문을 조사한 기관과 동일한 총 51개 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 251명, 부모 1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 방법은 설문지법으로 사용하였고, 일

부 이용자에 대해서는 관찰 및 면접 조사도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은 첫째, 어린이와 부모의 분류기호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둘째, 자료 검색 및 이용행태를 조사하여 자료검색 방법, 자료 찾기의 용이성, 자료 찾기의 어려운 이유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분류와 배가에 대한 요구 사항도 조사하였다. 설문 문항은 응답자의 일반 사항, 도서관 이용 현황, 분류기호 인지 실태, 자료 검색 및 이용 행태 조사, 배가에 대한 요구의 범주로 구성하였다.

4.1.2 어린이 이용자의 요구 분석 결과 가. 응답자 일반사항

조사대상 어린이는 총 251명으로 연령은 8세부터 13세까지이며, 응답이 가장 많은 연령은 11세로 26.7%를 차지하며, 12세는 24.3%, 13세 21.1%로 주로 11~13세가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4, 5, 6학년이 25.9%, 24.3%, 22.3%로 과반수이상을 차지하였다. 성별은 여자가 57.4%, 남자는 42.6%를 차지하였다.

나. 도서관 이용 현황

도서관 방문 횟수는 47.4%의 어린이가 1주일에 3~4번 이상 이용하고 있으며, 1주일에 1~2번 이용하는 어린이는 28.7%를 차지하여 76.1%의 어린이가 1주일에 1번 이상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었다. 도서관 1회 방문 시 평균 이용 시간은 36.7%가 1~2시간을, 32.9%가 3~4시간을 이용하고 있으며, 5~6시간 이상을 머무르는 어린이는 12%를 차지하고 있었다. 도서관 방문 목적은 책읽기를 위한 목적이 8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책 대출이 32.3%, 학

교 숙제가 25.1% 순으로 높았으며, 친구 만나기(4.4%), 컴퓨터 이용(3.2%)의 목적은 낮게 조사되었다.

도서관 이용교육 이수 여부는 이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어린이가 64.1%를 차지하였고, 이용한 어린이는 34.7%로 이용교육 이수자가 많지 않았다. 도서관 이용교육을 이수한 학생들 중에서 이용교육을 받은 기관은 학교도서관이 19.1%를, 공공도서관이 9.6%를 차지하였다. 기타 22.7%에는 스스로 터득함(42명), 부모님 및 가족(15명)을 통해 분류기호에 대해 알게 된 경우가 많았다.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면서 스스로 터득하게 된 어린이가 42명이나 되었는데 이는 도서관 이용을 지속적으로 하게 됨으로 분류기호에 대한 이해가 증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분류기호 인지 실태

도서관 분류기호의 인지 여부 조사 결과 '알고 있다'고 대답한 어린이는 146명으로 58.2%를, 알지 못하는 어린이는 104명으로 41.4%를 차지하였다.

라. 자료 검색 및 이용 행태

도서관에서 이용하는 자료의 유형에는 동화가 62.2%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자료이며, 만화책이 58.6%, 옛이야기가 42.6%, 역사/위인 25.9%, 과학 24.7%, 그림책 13.5%, 예술 13.1%, 사회과학 11.2%, 외국어 10.8%, 철학 8.4%, 참고자료 8.0%, 종교 6.4%, 비도서 4.8%의 순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었다. 도서관에서 자료 검색 방법은 컴퓨터 검색 48.6%, 서가 브라우징 45.8%로 높았으며, 사서에게 문의한다는 어린

이는 17.5%, 부모에게 문의는 8.4%, 친구에게 문의는 3.5%이었다. 컴퓨터 검색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가브라우징의 비율도 높아 어린이의 자료 접근에서 서가 배치가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었다.

분류기호에 대한 인지 여부에서는 41.4% 어린이가 분류기호를 모른다고 대답했으나 자료 찾기의 용이성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높지 않아, 분류기호를 아는 것과 자료 찾기는 별개의 문제로 분석되었다. 도서관에서 자료 찾기가 어려운 이유는 '비슷한 번호의 자료가 많음'이 32.3%, '자료배열 순서의 복잡성'이 31.1%, '자료 찾는 법을 몰라서'가 8%이었으며, 기타 의견으로 '책이 자리에 없음', '번호가 너무 작게 쓰여 있음' 등이었다. 이를 통해 자료 배열 방법과 청구기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청구기호 중 저자기호에 대한 어린이의 이해가 낮아 비슷한 기호의 자료가 많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배가에 대한 요구

도서관의 자료 중 별도의 배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는 소설 24.7%, 만화 22.3%, 과학 12.4%, 역사 6%, 사회 3.6%, 권장도서 2.8% 학습자료 2.8%, 외국어 2.4%, 위인전 2.4%로 조사되었다. 별도 배가에 대한 어린이 응답 결과를 보면,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자료에 대해서 별치 요구가 조사되었다. 원하는 배열 방식으로는 서명순 배열에 대한 요구가 24.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주제별을 16.3%, 학년별 15.5%, 문학 장르별 14.7%, 입수순 12.7%로 조사되었다.

4.1.3 부모 이용자의 요구 분석 결과

가. 응답자 일반사항

부모 응답자는 총 177명이며, 성별은 여자가 162명(91.5%), 남자 15명(8.5%)이었다. 부모의 연령대는 30대가 58.2%로 가장 많았고, 40대 40.7%, 50대 1.1% 순이었으며, 학력은 대졸 56.5%, 전문대졸 20.9%, 기타 13.6%, 대학원졸 7.9% 순이었다. 부모의 자녀수는 2명 61%, 1명 30.5%, 3명 7.9% 순이었고, 자녀의 연령은 초등학교 1~3학년 43.4%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교 4~6학년이 26.1%, 만 5~6세 18%, 만 1~4세 12.5% 순으로 응답자의 분포는 초등학교 1~3학년 부모가 가장 많았다.

나. 도서관 이용 현황

도서관 방문 횟수는 1주일에 1~2회가 41.8%, 1주일에 3~4회가 22%, 1개월에 1번 18.6%, 기타 11.9%, 1년에 6회 4.5% 순으로 1주에 1회 이상 도서관을 이용하는 부모는 63%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서관 방문 시 평균 이용시간은 1~2시간이 58.2%, 3~4시간이 26%, 1시간 이내 7.9%, 5~6시간 5.6%, 6시간 이상 1.7% 순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방문 목적은 자녀의 독서지도 79.7%, 대출반납 49.2%, 학교숙제 16.4%, 육아정보습득 15.3%, 놀이 5.6%, 컴퓨터 이용 0.6% 순으로 나타났다.

다. 분류기호 인지 실태

부모의 분류기호 인지 여부는 39%는 알고 있지만, 59.9%가 분류기호를 모르고 있어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분류기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였다. 분류기호의 습득에 대한 개방형 질문

에 도서관 교육이 17명으로 가장 높았고, 자가 습득이 7명, 도서명예교사 6명, 책을 통해서가 2명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기타로 필독서 목록을 통해, 배우자를 통해, 기타 기관 교육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라. 부모의 자료 이용 행태

부모의 어린이 자료 찾기의 용이성에 대해 '어렵다'고 느낀 부모는 63.8%, '쉽다'는 35.1%로 조사되어, 부모는 어린이 자료 찾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자료 찾기가 어려운 이유는 '자료배열 순서의 복잡성'이 48.6%, '자료 찾는 법을 몰라서' 33.6%, '비슷한 번호의 자료가 많음' 6.4%로 조사되었다. 부모는 자료를 찾을 때 복잡한 자료배열 순서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였으며, 둘째로 자료 찾는 법을 모른다고 응답하고 있어, 부모를 대상으로 자료 검색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린이실 내 부모를 위한 자료로는 자녀 성장 및 교육 관련 자료를 가장 많이 선호하였고, 다음으로 자기계발과 여가생활, 생활관련 실용서, 부모교육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마. 어린이실 자료 배가에 대한 요구 조사

부모의 어린이 자료 배가에 대한 조사에서 학년·연령별 필독서, 권장도서의 별도 배가를 요구하였다. 즉, 학년·연령별 필독서와 권장도서에 별칭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과학관련 서적, 역사서, 참고도서류, 그림책, 신간도서, 외국어, 위인, 전집, 만화, 교과관련 도서 등의 순으로 별도 서가를 요구하였다. 특히 부모가 어린이를 위한 자료를 찾아주기 위해서 연령별 구분을 원하였으며, 양질의 도

서를 선택하기 위해 권장도서나 수상 도서를 중심으로 한 서가 구분을 원하였다.

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특히 학습 영상자료는 주로 영화나 교육으로 분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분류지침이 필요할 것이다.

5. 어린이 자료 분류의 개선 방안

5.1. 분류체계 부문

5.1.1 특정 기호에 집중된 자료의 분산

KDC를 적용해 어린이 자료를 분류하는 경우, 각 주류의 전집에 해당하는 기호, 비도서 자료와 관련된 기호, 동화에 해당하는 기호 등에 자료가 집중되기 때문에, 이용 및 관리상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었다. 특히 다음의 기호에 자료가 몰려 기호를 세분화하거나 조기표 기호를 생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가. 전집

전집에 해당하는 KDC 분류기호(080, 408, 808.8, 808.9, 908, 990.8)에 저작이 집중되고 있었는데, 이는 다수의 어린이 자료들이 전집과 시리즈의 형태로 출판되기 때문이다. 분류체계 현황조사 결과, 분류담당자는 기본 표목을 출판사로 하는 전집 처리를 선호하고 있었는데, 이는 전집 기호의 집중 현상을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나. 비도서

비도서 자료에 해당하는 분류기호인 영화(688)와 애니메이션(688.6)에 자료가 집중되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비도서 자료의 분류 방식이 KDC 상에서 명문화되지 않아 분류작

다. 동화

문학의 동화에 해당하는 분류기호에 자료가 집중되고 있었는데, 현재 문학류는 도서관에서 소장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신규 구입 1순위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학의 여러 장르 중 특히 동화에 해당 기호를 세분화시키거나, 문학형식구분 조기표 수정, 어린이문학을 위한 조기표 마련 등에 대한 의견이 조사되었다. 그러나 동화 기호를 세분화하거나, 조기표를 생성하기 전에 어린이 문학 장르의 반영이 미미한 KDC의 문제점을 함께 검토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5.1.2 어린이 자료의 다양한 유형 및 특성 반영

어린이 자료의 다양한 유형 중에서 특히, 그림책과 만화책, 유아용 개념그림책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분류기호가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한국십진분류법해설』에는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과 만화책을 657.7(아동화집), 657.1(만화)로 분류하도록 지침을 제공하였지만, 실제로 어린이도서관에서는 허구적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그림책과 만화책은 대부분 문학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이렇다 보니 문학에 자료가 집중되는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그림책과 만화책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여 적절한 분류기호를 할당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글자를 모르는 유아의 감각, 인지 발달을 위한 개념그림책의 경우, 이를 분류할 수 있

는 기호가 없어, 도서관에 따라 375.1(유아교육), 813.8(동화) 또는 특정 주제에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표준적인 지침도 필요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도 최근 악보가 함께 수록되거나 외국어로 된 동요집의 출판량이 많아 이를 문학 아래 동요·동시에 모두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KDC는 어린이 자료가 갖는 특수한 구성 형식이나 물리적 형태의 측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구성형식 측면에서 사실 정보를 다룬 지식정보책에도 동화, 그림, 만화, 혼합(그림+동화) 등의 다양한 구성형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KDC 상에서 이와 같은 특성들을 표현할 수 없었다. 또한 팝업책, 형겅책, 키 큰 책, 키 작은 책 등과 같이 어린이 자료는 성인 자료에 비해 물리적 형태가 다양하고, 관리 상 별도 배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한 표준적인 지침이 없어서 어린이도서관에서 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KDC 기호나 분류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5.1.3 어린이문학 장르의 반영

선행연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KDC는 어린이문학 장르에 대한 반영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KDC의 문학류 전개 방식은 강수준을 언어권으로, 목수준을 문학 하위 장르로 세분하고 있다. 그러나 성인의 문학 장르를 위주로 표목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어린이문학 장르 중에서 동화, 동요·동시, 아동극만 기호(.8)로 반영되었고, 한국문학과 일본문학 등 일부 언어권 문학에만 나타났다. 따라서 언어권별 문학에 어린이문학을 일관성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 상

의 수정이 필요하다.

5.1.4 학제적 주제에 대한 상세한 주기 및 분류지침 제공

어린이 자료에도 학제적 성격의 저작이 많지만, KDC에는 이를 위한 적절한 분류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DDC의 경우, 분류표 상의 지침과 주기사항을 통해 이러한 학제적 저작에 대한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KDC는 『한국십진분류법해설』에서 DDC의 분류지침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어린이 자료와 관련된 내용은 매우 부족하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옛이야기, 신화 및 전설, 과학, 전기 부문에는 학제적 저작들이 많고, 분류할 수 있는 기호가 여러 개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분류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분류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서관마다 적용하는 분류기호가 모두 달라 일관성이 저해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주제에 있어서는 KDC 상에 우선순위와 임의적용과 같은 분류지침과 정의주기, 포함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어린이도서관에서 공통적으로 참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2 어린이 자료의 배가 부문

5.2.1 이용자 친화적인 청구기호 및 배열의 적용

어린이와 부모의 요구 조사 결과, 도서관에서 자료 찾기가 어려운 이유로는 '비슷한 번호의 자료가 많음'과 '자료배열 순서의 복잡성'에 응답이 많았다. 청구기호는 분류기호와 저자기호로 구성되며, 자료의 배열과 물리적인 위치에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따라서 이용자 친화

적인 청구기호와 배열 방식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 분류기호의 간략화

이용자 조사 결과, 어린이는 주로 유강목 및 세목으로는 인식하지만 그 이후의 기호에 대한 구별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어린이 자료가 성인과 달리 특정 주제에 집중되어 있고, 전혀 자료가 없는 주제기호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KDC를 기반으로 어린이 자료에 적합하도록 KDC의 간략판이나 어린이도서관용 KDC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DDC가 소규모 도서관과 학교도서관 등을 위해 DDC 간략판을 출판·보급한 것을 보아도 그 필요성을 알 수 있다.

나. 새로운 저자기호 방식의 도입

어린이 이용자는 청구기호 중에서 저자기호에 대한 이해가 비교적 낮기 때문에 비슷한 기호의 자료가 많다고 인식하였다. 저자기호는 저자별로 자료를 모아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청구기호가 길어져 어린이 이용자가 식별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함께 가진다. 따라서 어린이가 쉽게 이해하고 식별할 수 있는 저자기호 표기 방식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어린이도서관 간에 KOLIS-NET, DLS 등의 공통적인 시스템을 사용하여 목록데이터를 공유하는 현 체제에서는 지금까지 사용한 저자기호 방식을 변경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 다양한 배열 방식의 적용

자료의 서명순 배열을 선호하는 이용자 요구

를 반영하여, 특정 주제는 서명순 배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용자 요구 조사 결과, 어린이는 서명순 배열을 가장 선호하였는데, 이는 자료의 서명에 대한 기억이 가장 오래가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분류체계가 주제를 기준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주제 배열에 대한 선호가 높았으므로 어린이가 인식하기 쉽도록 분류기호 대신 주제명으로 지시하는 사인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학년별 배열은 부모와 어린이 모두 선호하는 배열로 나타나, 도서관에서 연령이나 학년을 표시하는 띠라벨을 부착하고, 장서의 배가에서도 학년별 연령별로 배가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라. 연령 구분의 반영

KDC는 연령 구분에 대한 이용자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현재 KDC의 표목과 조기표로는 이와 같은 특성을 반영할 수 없으므로, 개별 도서관 차원에서 별치기호나 온라인 목록, 띠라벨 등을 활용하여 문제를 보완하고 있었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연령별 배가에 대한 이용자 요구가 매우 높은 것을 고려한다면, 이를 단지 띠라벨과 같은 배가 단계에서만 적용하기 보다는 어린이도서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분류기호 상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DDC의 경우, 표준세구분표에 연령 구분을 두어, 도서관에서 언제라도 연령 구분기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KDC 상에도 연령 구분에 대한 조기표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어린이도서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5.2.2 이용자 관심을 반영한 다양한 컬렉션 구성

어린이 이용자의 자료 검색 및 이용 행태 조사 결과 도서관에서 자료 검색 방법으로 서가에 바로 가서 자료를 찾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가 배치가 어린이 자료 접근에 중요하며, 어린이의 자료 이용을 위해서는 이용자의 관심을 반영하여 다양한 서가 구분 즉, 컬렉션을 구성해야 한다. 요구 조사 결과, 어린이는 자주 이용하는 자료를 분산시켜 여러 곳에서 이용하기 보다는 한 곳에서 관련 자료들을 쉽게 이용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컬렉션을 이용하면 자료의 주제뿐 아니라 여러 주제가 모인 테마로도 구성이 가능하고, 또한 도서관 운영에 따라, 물리적 형태, 연령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컬렉션 구성과 더불어 어린이는 분류기호가 길어지면 이해력이 떨어지므로, 컬렉션을 식별할 수 있는 간략한 문자기호를 적용하는 방식도 필요하다. 도서관의 자료 중 별도의 컬렉션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는 자료에서 어린이는 동화(소설), 만화, 과학의 순으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어린이와 부모의 요구 조사를 바탕으로 도서관에서는 학년·연령대별 필독서, 권장도서, 그림책, 위인, 외국어, 만화, 교과관련 자료의 컬렉션 구성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2.3 도서관 이용 교육 실시

도서관에서 어린이와 부모를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며 그 프로그램 안에 분류체계와 청구기호, 배열에 대한 안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어린이도서관은 부모가 자녀를 동반하여 방

문하거나, 자녀를 대신해 부모가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린이는 그나마 학교도서관에서 분류기호에 대해 학습하는 경우가 많지만, 부모는 습득하는 경로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어린이도서관에서는 어린이와 부모를 대상으로 이용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6. 결론

분류체계의 기본 기능은 자료를 주제나 형식에 따라 유사한 자료를 모으고 구분하는 것이다. 또한 분류체계는 시대의 특성과 흐름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최신 주제와 유형적 특징을 가진 문헌도 이를 사용해 분류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표준 분류체계인 KDC는 1964년 초판이 발행된 이래 제 5판이 발행되었다. 제 4판이 발행된 1996년까지만 해도 어린이 자료의 출판량은 성인에 비해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린이 자료의 유형과 특성은 반영하지 않아도 충분히 장서의 분류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최근 10년 사이에 어린이 자료의 출판은 양적으로 급증하고, 질적으로 다양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2009년 발행된 KDC 5판에서도 이에 대한 반영은 여전히 미미하다.

어린이전문도서관 건립이 활성화되고 공공도서관 어린이실도 확충되면서, 어린이 자료를 주로 운영·서비스하는 도서관에서 KDC를 적용할 때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어린이도서관 51개의 KDC 적용 실태 조사와 이용자 요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자료 분류를 위한 KDC의 개선점

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개별 도서관 차원에서 용이하게 구현할 수 있는 어린이 자료의 배가 방안도 제시하였다.

분류체계 부문에서는 첫째, 각 주류의 전집에 해당하는 기호, 비도서 자료와 관련된 기호, 동화에 해당하는 기호 등에 자료가 집중되므로, 해당 기호를 세분화하거나 조기표 기호를 생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를 분산시켜야 한다. 둘째, 어린이 자료의 다양한 유형 중에서 특히, 그림책과 만화책, 유아용 개념그림책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분류기호를 할당하고, 어린이 자료가 갖는 특수한 구성 형식이나 물리적 형태의 측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기표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어린이문학의 다양한 장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 상에 수정이 필요하다. 넷째, 어린이 자료 중 옛이야기, 신화 및 전설, 과학, 전기 부문에는 학제적 저작들이 많고, 분류할 수 있는 기호가 여러 개 있는 경우도 있어, 우선순위와 임의적용과 같은 분류지침과 분류표 상에 정의주기, 포함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 자료 배가 방안으로는 첫째, 분류기호를 간략화하고 어린이가 이해하기 쉬운 저자기호 방식을 도입하는 등 자료 배열 방법과 청구기호에 대한 이용자 친화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연령 구분에 대한 이용자 요구가 높으

로 띠라벨과 온라인 목록을 활용해 이를 반영 해주어야 한다. 더불어 연령 구분은 원하는 모든 어린이도서관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차원에서 KDC에 연령 구분 조기표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둘째, 어린이 이용자는 서가를 훑어보며 자료를 찾으므로, 어린이의 관심 분야를 반영한 다양한 컬렉션을 구성해야 한다. 컬렉션 구성과 더불어 어린이는 분류기호가 길어지면 이해력이 떨어지므로, 컬렉션을 식별할 수 있는 간략한 문자기호를 사용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KDC 5판이 발행되기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KDC 4판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새로 발행된 KDC 5판에서도 여전히 어린이 자료 분류에 대한 특성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KDC 5판이 또 다시 개정될 때에도 그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KDC 개선 사항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기호 수정이나, 주기와 분류지침의 추가에 대한 후속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더불어 이용자 친화적인 저자기호나 청구기호 구성 방식에 대한 연구와 국내 실정을 반영하여 어린이 자료의 컬렉션 구성 방안에 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堀川照代. 2007. 『児童サービス論』. 고향옥 옮김. 파주: 알마.
 [2] 김정현, 문지현. 2007.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분류표 현황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2): 315-335.

- [3] 김천숙. 2005. 『공공도서관의 그림책 분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문헌정보학전공.
- [4] 김효정 외. 1997. 『독서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5] 문지현. 2008. 『어린이도서 분류법 개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전공.
- [6] 민경록, 성승경. 2005. 어린이 자료 분류를 위한 KDC의 수정 및 보완: 문학류(800)를 중심으로. 『전국도서관대회 주제발표논문집』, 43: 62-89.
- [7] 박경숙. 2005. 어린이도서관 분류표 현황과 과제. 『어린이와 도서관』, 1: 124-141.
- [8] 장지숙. 2006. 뉴베리수상작 주제 분석을 통한 어린이 독서자료 선정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7(1): 63-79.
- [9] 한국도서관협회. 2008. 2007 한국도서관연감.
- [10]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십진분류법해설편찬위원회. 1997. 『개정 제4판 한국십진분류법 해설』.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11] 한국도서관협회 분류위원회. 2008. 한국십진분류법(KDC) 제 5판 발간에 관한 공청회. 『제45회 전국도서관대회』, 2008년 10월 8일-1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 [12] Boyce, J. I., and Boyce, J. I. 2002. "A Reexamination of Shelf Organization for Children's Books [At West Baton Rouge Parish Library]." *Public Libraries*, 41 (5): 280-283.
- [13] Dumas, E. P. 2005. "Give 'em What They Want! Reorganizing Your Fiction Collection by Genre." *Library Media Connection*, 24(2): 20-22.
- [14] Fountain, J. F. 2006. *Guidelines for standardized cataloging for children In Cataloging Correctly for kids*, 4th edition,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
- [15] Intner, Sheila S., et. al. 2006. *Cataloging correctly for kids: an introduction to the tools*. IL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ALA).
- [16] Smith, R. V. 1999.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of folklore for children: searching for effective, user-friendly arrangements [at the Minuteman Library Network]." *Technicalities*, 19(8): 4-6.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2] Jeong-Hyen Kim, and Ji-Hyun Moon. 2007.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Schemes of Children's Librari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8(2): 315-335.
- [3] Cheon-Suk Kim. 2005. *Gonggongdoseokwanui Geurimchaek bullyue kwanhan Yeongu*. Graduate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4] Hyo-Jeong Kim, et al. 1997. *Dokseogyoyukui Irongwa Silje*.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5] Ji-hyun Mun. 2008.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Library Classifications*, Ph. D. dis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6] Kyeong-Rok Min, and Seung-Kyeong Seong. 2005. "Eorini Jaryo Bullyureul wihan KDCui Sujeong Mit Bowan: Munhakryu(800)reul Jungsimeuro." *Jeongukdoseogwandaehoe Jujebalpyonmunjib*, 43: 62-89.
- [7] Kyeong-Suk Pak. 2005. "Eorinidoseogwan Bullyupyo Hyeonhwanggwa Gwaje." *Eoriniwa Doseogwan*, 1: 124-141.
- [8] Ji-Sug Jang. 2006. "A Study on Selection Efficiency Scheme in Children's Books through Subject Analysis of The Newberry Medal Winner's Book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7(1): 63-79.
- [9]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08. *2007 Korean Library Yearbook*.
- [10] Korean Library Association Hanguk sibjibullyubeop haeseol pyeonchan wiwonhoe. 1997. *Kaejeong Je 4pan Hanguk sibjibullyubeop Haeseol*.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11] Korean Library Association Bullyuwiwonhoe. 2008. "Hanguk sibjibullyubeop(KDC) Je 5pan Balgane gwanhan Gongcheonghoe." *Je 45hoe Jeonguk doseogwan daehoe*. 2008. October 8-10, 2008. [Gwangju: Kimdaejeung Convention Center].